

April 21, 2019

부활주일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인도: 김원기 목사
Offering 헌금기도	사회자	Presider
◎ Praise 찬 양	예수 우리 왕이여	
◎ Prayer 참회기도	다같이	Together
◎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Together
Hymn 찬 송	165장(통155, 주님께 영광)	
Prayer 기 도	김용훈	집사
Announcement 교회소식	유아세례/성찬식/특송(EM)	
Scripture Reading 성경봉독	마태복음28:1-10	
Choir 성가대찬양	“ 부활하신 구세주 ”	
Sermon 말 씬	김원기 목사	
“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일 ”		
◎Prayer 기 도	다같이	
◎ Benediction 축 도	김원기 목사	

오후 찬양예배 ✦ 주일 오후 1:00

☐ 유아세례 / 성찬식 / 성가대연습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

☐ 말씀: 삼하23:8-12 ☐ 제목: 다윗의 용사들 ☐ 기도: 합심기도

기타 예배 안내

☐ 새벽 기도회 ✦ 월요일 자유기도, 화요일부터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 교육부 예배 ✦ 주일 오전 11:00 / 주일 오후 1:30

구역별 모임 안내

☐ 고구마 - 구역장 : 라계용 권사	인도 : 라태한장로
☐ 감자 - 구역장 : 김정식장로	인도 : 조홍진장로
☐ 무 - 구역장 : 김봉재 권사	인도 : 황창원전도사
☐ 배추 - 구역장 : 최은자 권사	인도 : 최 활 집사
☐ 실버 - 구역장 : 정선옥 사모	인도 : 정윤두 목사

† 선교의 끈을 쥐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 2019년 표어 또 “예수님처럼-예수님처럼”(요15:10)
- 이달에 읽을 성경은 로마서 입니다.
- 2019년 4월 행사계획
4/21 부활주일(성찬식), 유아세례식.
4/28 생일축하. 교역자회의.
-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배중에 유아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위원 : 라태한, 성기현 장로님)
- 유아세례자 : Joelle Jane Tarroza(6/23/88)/Jameson Rosell Tarroza(10/17/18)
부모 : Justin Tarroza / Jeanette Kim Tarroza
- 오늘 점심은 구역연합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떡 김경식장로님)
- 교회 그릇을 박계옥권사님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 교우동정
-김창님 권사(LA 작은 딸집)
-한경완 권사(팍데일 큰 딸집)
- 예배에 참석하신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주일2부 대표기도순서
4/28 원동길장로 5/5 라태한장로 5/12 황동군집사 5/19 성기현장로
토요일 새벽기도순서
4/27 장정님권사 5/4 최은자권사 5/11 라계룡권사 5/18 성송특권사
†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 전 안내석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 기도 : 1부- 합심기도	•2부- 원동기 장로
☐ 안내 : 1부- 황창원전도사	•2부- 예배위원
☐ 예배 특송 : 성가대찬양	☐ 찬양예배 기도 : 합심기도

교회를 섬기시는 분

☐ 교육목사 :	☐ 전 도 사 : 황창원
☐ 시무장로 : 김경식 라태한 성기현 조홍진	☐ 협동장로 : 원동길
☐ 음향간사 : 장정관	

헌 금

OFFERING Devotion

십의일조 : \$	
주일헌금 : \$	
감사헌금 : \$	
지난주일 합계 : \$	

고린도후서6:14- 7:1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근목자흑(近墨者黑)이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으로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악에 물들기 쉽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공자도 '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착함에 동화되며, 착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악함에 동화된다'(명심보감 교유편)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므로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출33:16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라고 기록합니다.

1.동역할수 없다(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후서6:14절과 신명기22:10 "너는 소와 나귀를 거리하여 같이 말며" 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소와 나귀를 다른 곳에서 격리해서 키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와 나귀가 한 농장안에 같이 살면서 같이 키워질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여물통의 여물을 먹으면서 키워질수 있습니다. 그런데 멍에는 같이 메지말라는 것입니다. 밭을 가는데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매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함께 멍에를 매게하면 일이 안됩니다. 즉 동역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상종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동역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함께 진리를 쫓는 자로서의 삶을 더불어 나눌수 있는 관계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삶의 동역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논리입니다.

2.하나님의 성전입니다.(16-18)

고전6:19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성령의 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방탕하여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깨끗히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존할수 있습니까?

17절에 '따로 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포리조' 입니다. 선을 그어서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선이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도들은 세상과 선을 그어 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선이 있으면 우리가 고립될것 같지만 도리어 존경하고 보호해 줍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애매하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이지 정확히 선이 있으면 존경하고 지켜주려고 합니다.

3.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7:1)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라고 합니다. '하기오스' 라고 읽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으로서의 성도에게 요청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할 성전도 마땅히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229회나 나옵니다. 거룩이라는 덕목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라고 기록합니다. 온전히 이루는 헬라어가 '에피텔룬테스'라고 하는데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1회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노력함으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결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성결해져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